

제1회 대한약침학회 약침포럼 결과 공지문

대한약침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학회는 기 공지한 바와 같이 2014년 7월부터 제기되어온 자동차보험 환수 및 삭감 소송 등에 관한 현황 보고와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회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대한약침학회 강당에서 지난 6월 18일 약침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약침포럼에는 대한약침학회의 임원 및 변호사, 자동차보험 환수로 피해를 보신 회원님 일부가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참석이 여의치 않아 설문지로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신 회원님들과 직접 참석해주신 회원님 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약침포럼에서 토론되었던 내용들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대한약침학회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환수를 막기 위해 진행한 1심 소송들에서 연거푸 패소를 했습니다. 현재 본 학회와 회원 한분이 이에 항소하여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 재판의 결과는 약 5개월 정도 후에 나오리라 예상합니다.

대한약침학회는 현 안병수 회장 체제로 바뀐 후 구태로부터 벗어나고 혁신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의 긴 소송으로 학회에 대한 회원님들의 반목과 불신은 학회의 존립조차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학회의 재정은 바닥이 나고 직원들의 급여를 걱정해야 하는 실정인데도, 설상가상으로 주식회사 약침학회의 대표이사인 강대인 전회장은 근 15년간 본인이 몸담아 왔던 대한약침학회와 SJ탕전원을 피고로 3건의 소송과 더불어 약 7억 원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현재의 대한약침학회는 강대인 전회장이 본 학회로 제기한 소송까지도 잘 방어해야 하는 困窮에 처해있습니다. (1.기계사용금지 가처분소송 2.기기반환 소송 3.손해배상소송)

한 때 3천명을 상회하는 대한민국 제일의 학회에서 회원들의 바램과 요구 등 소통에 부재했던 이전 대한약침학회는 순식간에 회원들의 냉랭한 시선으로 서서히 잊혀져 가는 학회로 전락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런 가운데에서도 다행스러운 점은 이번에 새롭게 태어난 대한약침학회의 진정성에 한 분 두 분씩 신뢰를 보이며 대한약침학회 회원으로 다시금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론장이 떠나갈 듯 울분을 터트리며 '학회의 말만을 믿었고, 학회가 보호해주리라 철석같이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회원님의 외침과 '그래도 약침학회가 잘 되기를 바라기에 이 자리에 왔다'는 말씀은 지금도 임원진의 심금을 울립니다.

대한약침학회의 미래는 회원님들과 함께해야만 약침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환수를 당한 회원님들은 끝까지 학회를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이기에 학회가 회원님들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다고 다시 한 번 마음을 굳게 다잡아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대한약침학회는 본 사태와 관련하여 진정성을 갖고 도의적으로 보상하고자 합니다.

본 학회는 회원님들의 상황에 따라서 환수, 상계, 삭감 그리고 환수소송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고, 환수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 AJ탕전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날까지는 보상의 과정을

충실히 이행코자 합니다. 따라서, 우선 오는 7월부터 2016년에 행정소송에 함께 하셨던 회원님들부터 행정소송 시 제출한 환수금 전액에 대해서 협력 원외탕전인 AJ탕전원을 통해서 조제의뢰시 비용에 10%의 할인율로 환수금 일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참석해주셨던 회원 분들 위주로 하여 가칭 자동차보험 환수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후 전개되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회원 분들과 소통하며 논의하여 합리적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대한약침학회는 회원님들께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경제적 손해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본 학회는 회원님들께 분골쇄신의 마음으로 거듭 태어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